

순천시, 일본 이즈미시와 교류 10주년 온라인 간담회 개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미래동반자로서 지속적 교류 의지 다져 “내년 정원박람회 앞두고 자매도시 참여 위해 홍보에 박차”

순천시는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09년 처음으로 이즈미시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올해 교류 10주년을 맞아 이즈미 시장 일행 방문, 기념정원 조성 등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이노키 신이치 이즈미시장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이즈미시 대산업제 축제’에 시장님

의 답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흑두루미 보전을 계기로 201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청소년 교류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매도시 10주년을 맞아 미래 동반자로서 문화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오는 10월에는 두루미를 주제로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계획

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이즈미시를 비롯한 국외 자매도시의 참여를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자매도시 체결이 이루어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홈스테이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총 1,200명의 학생들이 교류하였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작년 교류는 온라인 교류로 대체되었으며, 올해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비대면 교류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마쳐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주력



광양시는 지난 6~8일 광양 중앙도서관 인문학실에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회의진행자, 조력

자) 양성교육’은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과 스마트회의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마을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민자치 역할 강화에 필요

한 핵심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3일에 걸쳐 24시간 동안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퍼실리테이션 이해,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랙션 기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인증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종태 투자일자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양성돼 주민 간 소통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 현장 활동가로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후 마을활동가 선발 시 이번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우대해 예정이며, 마을공동체가 단기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마을활동가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청년 CEO 8명 발굴, 창업·성장지원금 지원 청년 창업가 자생적 기반 마련...일자리 창출 견인

고흥군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8일 고흥 청춘누리(청년센터)에서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지원과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자와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 2021년에 총 17명을 대상으로 2억 5백만원의 지원하여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청년일구 유입 등에 기여하였다. 이번 대상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가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업가를 위한 순환학습이론과 사업계획 수립, 수익모델 발굴 등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교육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8명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은 1인당 최고 1800만 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 받게 되는데, 이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유*희님은 “찜질 카페”라는 사업 아이디어로 찜질과 카페를 접목시켜 건강음료부터 찜질, 마사지 등을 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주도형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의 미래 생태계 조성 등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휴양도시 ‘민관 협업조직’ 운영

관광분야 6개 기관·단체와 10개 관광, 숙박시설 실무자 참석

여수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민·관 협업조직’ 1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광분야 6개 기관·단체와 10개 관광, 숙박시설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관광동향과 빅데이터 분

석 자료를 공유하고,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해결 방안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 건의 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여수 관광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질적 성장이 중요해진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 한국차박물관, 지역 작가와 손잡고 다채로운 전시

김현호 사진전 ‘차밭에 머물茶’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은 오는 17일까지 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시(詩) 쓰는 사진작가 김현호 사진전 ‘차밭에 머물茶’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현호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아름다운 보성 차밭의 사계절이 담겨있다. 김현호 작가는 한국프로사진 초대작가로 보성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문인협회 이사, 보성예총 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사진작가 겸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한울문학 시 부문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2017년 「차꽃 피면 만나리」 시집



을 발간했다. 한국차박물관은 ‘2022년 한국차박물관 전시 공간 공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 작가들에게 기획전시실 무료 전시 및 전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성=김명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